月刊 등불

www.tongdosa.or.kr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지입니다.

TONGDOSA
영축총림 통도사

APRIL 2016
Monthly Magazine vol. 413

글. 사진
통도사 성보박물관

「대안칠년」명 내원사 청동북
「大安七年」 銘 內院寺 靑銅鼓

고려 1091년

銅 / 지름 40.5cm / 보물 제 1734호

금고의 측면 두 곳에는 고정공이 있어 매달도록 되어 있으며, 둘레에는 두 가닥의 가는 선이 돌기되어 있다. 그 안으로는 네 곳에 구름무늬가 양각되어 있고 다시 그 안쪽으로는 두 가닥의 태선이 돌기되었다. 내부에는 초화문草花文이 그물처럼 연결되었고, 중심부의 당좌撞座부분은 문양이 없이 그 외곽 둘레에만 원형의 선이 돌기된 형태이다.

반자의 측면에는 「대안칠년신미오월일동양승정묘차화조납금인사반자일구중이십근인大安七年辛未五月日棟梁僧貞妙次和造納金仁寺飯子一口重二十斤印」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를 통해 대안 7년(1091)에 제작되어 금인사金仁寺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반자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양산 천성산 내원사에서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으로 이운되었으나, 명문에 적힌 금인사와 내원사의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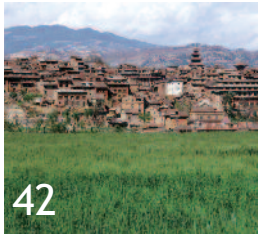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번지 TEL. 055-382-1001 FAX. 055-384-0030

목차

12

18

20


42

02 **통도사 성보**
「대안칠년」명 내원사 청동북 「大安七年」銘內院寺 靑銅鼓

06 **방장스님 휘호**
虛空江海皆光翠(허공강해개광취) 宇宙森羅總法山(우주삼라총법산)

08 **선어록 강좌**
남전화상은 왜 고양이를 죽였을까?

12 **마음으로 읽는 불교문화**
민족 신앙의 가치

14 **새롭게 읽는 삼국유사**
치술성모가 된 망부석, 박제상의 부인 이야기

18 **향성**
생강나무 꽃아래 염불소리

20 **등불화보**
사부대중 입맛 돋울 맛난 '장' 담그기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식

출가 • 열반재일 8일 정진기도 봉행

23 **산문 밖 이야기**
4월의 이야기 '선물'

30 **사찰 속 공양간을 가다**
영축산 백운암 공양간

35 **그림으로 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36 **새롭게 조명한 인도불교사**
인도 불교의 역사 _세계를 만든 자와 독화살

42 **등불의 세계여행**
인도 갱톡으로의 홀로여행

47 **경전 산책**
재가 계율의 보고寶庫 -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50 **영축환경칼럼**
통도사의 사찰 약수

54 **진주 남강유등축제 소식**
통도사 •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손잡고 문화축제로 활성화

56 **종립학교, 그 캠퍼스를 찾아서**
밀양 홍제중학교

60 **말사 탐방**
新포교제일도량 진흥사

64 **산하기관_** 통도사유치원
통도사유치원 친구들 신학기 생활

66 **원상스님이 들려주는 '이 공양'**
쑥 털털이

68 **건강칼럼**
나른한 봄날 머리를 맑게 해주는 매화 차

70 **영축소식**
통도사 / 박물관 / 자비원

74 **학인마당**
인연因緣

78 **편집후기**

솜털 같고
깃털 같아
한없이 가벼워라
이 처음의 모습으로도
그대 '초심'의 그날을
반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간 등불 1990년 9월 28일 등록. 2016년 4월 5일 발행(통권413호)
발행인 겸 편집인 향전 영배
편집주간 도문
편집장 선본
편집위원 진각 진응 정진
회계 안은경
발행처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 384-8380 팩스 055) 382-7196
취재 · 사진 김윤희 김정은
기획 ·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18 동광빌딩
전화 051) 255-0263 팩스 051) 255-0953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붓글씨
원명지종대종사 영축총림 방장

虛空江海皆光翠 (허공강해개광취) 요
宇宙森羅總法山 (우주삼라총법산) 이라

허공과 강해가 모두 빛이요
우주 삼라만상이 법산이구나.

광명은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인가?
허공이여! 강이여! 바다여!
모두가 반야의 광명
아닌 게 없고,
우주여! 삼라만상이여!
그 어떤 것도 진리의 법신
아닌 게 있으리오.

글.
법산 통도사 선덕, 동국대 이사

禪語錄

남전화상은

왜
고양이를 죽였을까?

無門關 第 14則 南泉斬貓

南泉和尙 因東西堂 爭貓兒,

泉乃提起云 大衆道得 卽救, 道不得 卽斬卻也.

衆無對 泉遂斬之.

晩趙州外歸 泉擧似州 州乃脫履 安頭上而出.

泉云 子若在卽救得貓兒.

無門曰

且道, 趙州頂草鞋意作麼生?

若向者裡下得一轉語 便見南泉令不虛行

其或未然 險.

頌 曰

趙州若在 倒行此令

奪卻刀子 南泉乞命

번역

남전화상이 동쪽과 서쪽의 선당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늘 상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남전화상이 고양이를 잡아들어 보이며 대중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한마디(깨친 바를) 말하면 살릴 것이요, 말하지 못하면 죽일 것이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남전화상은 바로 고양이의 목을 쳐 죽였다.
저녁 때 조주스님이 외출에서 돌아오자 남전화상이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
조주스님이 바로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갔다.
남전화상이 말하기를 "자네가 있었다면 바로 고양이를 구했을 것을!"하였다.

무문선사가 논평하였다
자! 한 마디 해 봐라. 조주가 짚신을 머리에 인 것은 어떤 뜻인가?
만약 여기서 한 마디 뒤집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곧 남전이 헛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위태롭도다.

게송으로 노래하다.

조주가 만약 있었다면 한 마디로 뒤집었을 것인데,
칼을 빼앗었다면 남전이 살려 달라고 했을 것이야.

해설

남전보원南泉普願:748-834화상은 중국선종의 6조 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의 선법을 계승한 대선사이다. '개는 불성이 없다(狗子無佛性)'는 화두로 유명한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선사는 남전화상의 제자다.
남전화상은 왜 고양이를 참살하였을까?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계는 사바라이죄로서 가장 무거운 죄목이다. 남전화상은 분명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로서 산중의 방장 큰스님인데 어떻게 살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동·서 양당의 선원 수행자들이 양쪽을 오가는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네 고양이라고 다투는 꼴을 보며 형상에 고집하고 있는 수행자들을 시험해 보고 시비를 종식시키고 각자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중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동서양당의 망상적 시비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의문은 대단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후 늦게 외출에서 돌아온 조주에게 그 상황을 물었을 때 조주는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갔고, 이를 본 남전화상은 "자네가 있었다면 바로 고양이를 구했을 것을!"하였다.
조주가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가는 행위가 어찌 고양이를 살릴 수 있는 정답이었을까?

무문선사는 논평에서 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간 조주의 선기禪機를 직각 알아차리면 남전화상의 마음에 합일하여 「남전참묘南泉斬貓」의 화두가 타파되며 은산철벽銀山鐵壁 같은 무시겁래의 업장이 확! 무너져버리고 남전화상이 더 이상 이러한 헛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수행자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심려이다.

게송에서, 만약 조주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참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는 곧 고양이를 죽일 칼의 용처조차 없으니 칼을 빼앗긴 남전화상이 오히려 살려달라고 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남전화상의 손에 참수당한 고양이는 1200 여년의 시공을 넘어 바로 이 시간 참선 수행자의 공안으로 살아 참구되면서 그 생명력은 생생하게 살아 있다. 알 수 없거든 조주의 짚신짝이라도 찾아보시라.
어허! 콧구멍 없는 소에게 물어보든지.

천년의 향기가
숨쉬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병신년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발원합니다.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입재 2016. **4. 11**(음 3.5) ~ **회향** **4. 13**(음 3.7)

장소

통도사 금강계단

동 참 금 5만원 (새마을금고 6269-09-005031-0 예금주 통도사)
차량안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앞 - 오전 8시 ~ 9시
접 수 처 화엄전 055) 381-1288 팩스 055) 372-7010
문 의 처 통도사 종무소 055) 382-7182

글.
도일스님 전_송광사 율원장

민족 신앙의 가치

서양적 가치관의 종교 성립 요건은 교주와 교리 그리고 교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교는 종교라기보다 미개한 민속에서 나온 민간 신앙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그 나름대로의 신앙 풍습이 있어왔고 어떤 것은 민족적인 종교 형태로 발전된 것도 있다.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도 교리나 교의는 있으나 그 창시자는 뚜렷하지 않고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힌두교 역시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립되어 그 창시자가 없다.

일본의 신도는 역사나 전설 속의 인물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 독특한 민간신앙이 되었고 중국의 위인들을 모시는 신앙들도 아직도 곳곳에서 전승되고 있다.

미국 역시 인디안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신앙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으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민간 신앙이 지역 주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민속 신앙 가운데서 고등종교와 결합하여 새로운 신앙 형태로 발전한 것도 많다. 티벳의 밀교는 불교와 티벳 고유의 민간 신앙인 뵌교가 밀착되어 독특한 티벳 불교를 낳았고 중국의 도교적 요소와 불교가 결합된 전진교와 같은 신앙도 있다.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처럼 서양식의 종교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신앙의 형태라도 그 가치는 매우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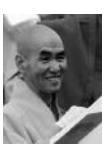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서 붉은 색을 칠한 신사를 자주 보게 된다. 규모를 갖춘 이름난 곳도 많지만 마을 곳곳에 소박한 모습의 미니 신사도 많이 만나게 된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과 같은 나라에도 곳곳에 토지신이나 마조媽祖를 모신 사당이 있어 찾는 이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민간의 신앙이 그 국민의 정서에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일본의 볼거리 중의 하나인 마쯔리는 신사에서 시작되고 각 기념일에는 신사를 참배하려는 사람들로 온 나라가 술렁이기도 한다. 대만의 토지신 혹은 마조묘에도 보름이나 특정한 날에 많은 인파가 몰려 향화香華를 올린다. 그들의 이러한 신앙은 신사나 묘가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안에 작은 신당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공경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풍습은 생활의 안녕이나 개인의 기복적 발원과 관련 있는 것이지만 그 영향은 사람의 마음을 선량하고 순박하게 이끌기도 하는 선기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많은 민간 신앙이 전승되어 왔다. 단군을 모시는 것부터 마을마다 성황당이나 당산나무가 있어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또 무속적인 신앙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다. 산신이나 용왕, 혹은 조왕신은 우리 민족의 단골 신앙이다. 마을 어귀에는 장승이나 돌미륵이 있어 수호신 역할을 하였고 정갈한 장독대는 기도처가 되기도 했다.

산신이나 용왕신의 경우 불교가 흡수하여 한국적인 불교신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황당이나 당산나무가 없어지고 신당과 무속적인 행위들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풍습이 사라진 자리에 교회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이나 대만이 온전히 민속적인 신앙을 보존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 절하해 버린 것이다. 서양의 학자 가운데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더러 있다. 이들은 이러한 소박하고 원시적인 신앙에서 한국 사람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우리는 이웃나라의 민간신앙에서 그들만의 매력과 이국적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러한 가치는 오랜 세월동안 지키고 보존 해 온 그들의 마음인 것이다. 이웃나라들의 당당하고 화려한 신사나 묘를 보면 그토록 오랜 역사를 지닌 단군신전이나 산신당 한 곳의 규모가 큰 것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른 말로 한국적 혼과 멋이 없다는 뜻이다.

세상의 우수한 고등종교도 무엇엔가 귀의하는 소박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바이칼 호수에서 비롯된 한국의 마음과 믿음이 긴 역사 속에서 함께 해 온 민간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이러한 가치를 지켜온 불교의 포용력은 민간 신앙의 수호자 역할을 하였다. 서양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미신적인 것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민간 신앙을 품고 있는 한국 불교는 미래의 정신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매우 뛰어난 불교의 사상과 단순하지만 정성스러운 한국의 정서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도일 스님

1973년 양산 미타암에 입산, 1975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7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을 지낸 스님은 통도사 취운선원, 부산 보광사 등에서 운수납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은 4월3일부터 매월 음력 15일마다 부산 당리동 관음사에서 정토 법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치술성모가 된 망부석, 박제상의 부인 이야기

치술령에 가면 망부석이 된 여인이 서 있다. 삼국유사에는 김제상, 삼국사기에는 박제상이라 부르는 신라 충신의 부인 바로 치술공주이다. 신라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충신 남편 박제상의 이야기도 가슴앓이고 절절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아내에게 '선도산 성모'의 위상과 같은 '치술성모'로 또 '치술신모'의 칭호를 부여하고 백성들이 칭송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일이다. 도대체 그 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먼저 '내물왕 김제상' 조의 삼국유사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때는 내물왕 36년(390), 왜의 사신이 왕자를 인질로 청하자 당시 10살이던 셋째아들 미해(미토희, 미사흔)를 보냈지만 30년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신라왕자 미해는 40세가 되도록 신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내물왕의 첫째 아들 눌지가 왕이 된 지 3년(419)에는 또다른 동생 보해(복호)를 고구려 장수왕에게 인질로 보내게 된다. 보해 또한

한 번 가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자 눌지왕은 7년 후(425) '라이언일병 구하기' 신라 버전인 '두 동생왕자 구하기' 작전에 돌입하고 그 특명을 김(박)제상에게 맡긴다. 눌지의 가슴절절한 말을 들어보자.

"옛날 아버님께서 성심으로 백성들을 돌보셨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동쪽의 왜국에 보냈다가 다시는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소. 또 짐은 왕위에 오른 이래 이웃나라의 군사가 너무나 강하여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소. 고구려만이 화친을 맺자고 하기에 나는 그 말을 믿고 동생을 고구려에 보냈던 것이오. 그런데 고구려도 동생을 억류시키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소. 짐이 아무리 부귀를 누린다 해도 단 하루도 이 일을 잊은 적이 없고 울지 않은 날이 없었소. 만일 두 동생을 만나 함께 선왕의 사당에 참배하게 된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이오. 누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소?"

당시 전쟁을 피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선 이처럼 왕족을 인질로 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삽라군(양산) 태수 김제상은 눌지왕에게 두 번 절하고 답한다.

"신이 듣기로,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일의 어렵고 쉬운 것을 따진 뒤에 행한다면 충성이 아니옵고, 죽고 사는 것을 헤아린 뒤에 움직인다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신은 비록 불초하나 원하옵건대 명을 받들어 행하겠사옵니다."

이 얼마나 마음든든한 말인가. 왕에게 이런 신하 하나만 있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이다. 제상은 그야말로 사나이 대장부. 용감할 뿐 아니라 지략도 뛰어난 특급브레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먼저 고구려로 가서 고구려 사람들의 옷으로 변장하고 보해를 만나 탈출 계획을 감행하고 성공시킨다. 계획이란 미해가 병을 빙자하여 며칠동안 조회에 나가지 않을 핑계로 방심하게 한 후 거사 날짜에 고성포구에 배를 대놓고 도망시키는 것이었다.

눌지왕은 돌아온 보해를 보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지만, 또 그만큼 35년이나 떨어져 있는 동생 미해가 더욱 생각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당시 그의 심경은 이러했다.

"마치 몸 하나에 팔 하나만 있고 얼굴 하나에 눈 하나만 있는 것 같구나. 비록 하나를 얻었지만 하나는 잃었으니,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이때 제상은 다시 왕에게 재배하고 그 길로 말을 달린다. 우리는 현재 산 사람에게는 한 번, 조상 제사에는 두 번 절하는데 신라시대에는 왕에게 재배를 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의 재배가 그때 왕에 대한 예의가 조상에 대한 예의로 전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때 바야흐로 제상의 아내가 등장한다.

당연히 집에도 들르지 않고 충성에 가득차 떠난 제상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 치술은 말을 달려 율포 해변까지 뒤쫓는다. 당시 신라여인도 말을 탔었다는 사족을 귀띔해두고 긴박한 상황을 따라가 보자. 아뿔싸 제상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나고 있었다. '임아 그 바다를 건너지 마오'라고 '공무도하가'를 불렀을 법한 그 장면에서 제상은 손을 흔들며 떠나갔다고 삼국유사는 전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한다.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포구로 달려와 배를 바라보며 크게 통곡하고 말했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제상이 돌아보면서 말했다.

"내가 명을 받들어 적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당신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지 마시오."

그렇게 목숨걸고 고구려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선 또 다른 사지로 가는 남편이라니… 치술은 어찌나 애달팠던지 망덕사 문 남쪽 모래밭에 이르자 드러누워 발버둥 치며 울부짖고 몸부림쳤다고 전한다. 치술은 꽤나 적극적이고 감정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성격이었던가 보다. 그리하여 그 곳의 이름을 길게 드러누운 모래밭 '장사長沙'라고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 그런 그녀를 친척 두 사람이 부축해 일으키려 하였으나 치술은 다리를 뻗고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벌지지伐知旨'

눌지왕의 '이산가족 찾기'에 사무친 한과 그리움을 풀기 위한 또 다른 가족의 생이별이 희비의 쌍곡선으로 흐른다.

그렇게 왜국으로 떠난 제상은 이번에는 더욱 과감한 지략을 쓰기 위해 기꺼이 자기 한 목숨을 던진다. 왜왕에게 눌지왕을 배반하고 온 비운의 신라인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 왕의 신뢰를 얻는다.

그렇다면 이 또한 제상의 솜씨라고 봐야 할 것이다. 백제인을 스파이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드디어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미해를 신라로 떠나보내고 자기가 대신 미해인 체하며 병으로 앓아누워 시간을 번다. 물론 미해는 제상과 함께 돌아가기를 간청했지만 실패 가능성이 높은 수를 제상은 감행하지 않는다.

미해와 가까이 하며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해 왜왕에게 바쳐 환심을 사는데까지 성공한 제상. 삼국사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신뢰를 쌓는 내용이 전한다.

왜왕은 제상과 미해(미사흔)의 관계를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제상보다 바로 전에 백제인이 들어와 첩보를 전한다. 신라와 고구려가 왜를 치려한다는 정보와 함께 신라에서 제상과 미해의 가족을 박해한다는 내용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문학박사(석보상절 주제)
철학박사(삼국유사 주제)

글. 그림
수안스님 문수원

생강나무 꽃아래 염불소리

개울 물소리 맑은 날
생강나무 노란 꽃 구경은
단조성 하얗게 쌓인 눈과
잘 어울린다.

아랫마을 할매보살님
눈 온 뒤라 떡 장사 쉰다며 찾아온 사연은

"아미타불 염불하면 좋은데 가나"
질문에
"그러믄요,
그러믄요"
"지금 당장 복입니다."

뜨겁게 호호 불며 마시는 차 맛
아미타불 마음으로 念하며
전생 래생 다 그냥 두고
지금 당장 나는 누고?

통도사 사부대중의 입맛을 책임지게 될 장 담그기 운력이 3월 1일 원주실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은 음력 정월 말(馬)일로, 예부터 말의 날에 장을 담그면 장맛이 일품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길일을 맞아, 따뜻한 햇살 아래 진행된 운력에는 자연음식연구소 소장 원상스님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신도님들이 마음을 내어 동참했습니다.

사부대중 입맛 돋울 맛난 '장' 담그기

그동안 달아놓았던 메주에 쌓인 먼지를 솔로 깨끗이 문질러 씻은 후, 물기를 뺀 다음 항아리에 담고, 소금물을 부어줍니다. 그 위에 참숯, 참깨, 마른 고추 등을 띄우고 메주가 위로 뜨지 않도록 대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눌러줍니다. 이제 몇 달에 걸쳐 날씨가 좋은 때는 뚜껑을 열어 일광을 쬐어주고 숙성을 도와가며 정성을 들이면 맛있는 된장, 간장이 완성될 것입니다. 10가마니 분량의 메주를 담아 장독 15개 분량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통도사 대중 모두와 불자님들의 입맛을 돋울 구수한 장을 맛 볼 수 있게 될 테지요.

특히, 통도사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많은 소나무들이 송화가루를 날려 보내면, 이로 하여금 장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하며, 머리가 맑아지는 일품 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불법 익혀 신실한 영축총림의 불자될래요.”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식 5백여 불자 입학

영축총림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식이 지난 3월 2일 오후 2시 설법전에서 주지 영배스님, 총무국장 도문스님을 비롯한 종무소 소임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입문반, 본과반, 경전반으로 나뉘어 총 5백 여 명이 입학식에 참여했으며 입학생들은 1년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날 입학식에서 주지 영배스님은 “불교공부는 1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지니고 있으나 그 행위에 따라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됩니다. 기도는 자신을 거울에 비춰 보는 일이며 수행은 마음으로 닦아야 되는 일이므로 불교대학의 입학생들 역시 그 마음자세로 불교공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며 입학생들을 향해 덕담을 곁들인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날 입학식에서는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원들의 축가가 설법전에 울려 퍼져 입학생들을 축하하는 무대가 더욱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출가·열반재일 8일 정진기도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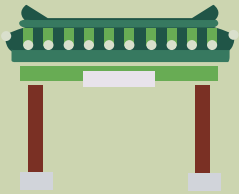
최상의 진리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일생을 보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열반절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8일간의 특별 정진 기도가 봉행되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도 출가재일인 3월16일(음력 2월 8일)부터 열반재일인 3월23일(음력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2560년 출가에서 열반까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율주 혜남스님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도문·영일·도일·법산·덕문·시명·법선 스님으로부터 팔상도를 주제로 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음,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수지하고 불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매일 새벽예불과 석가모니불 정근, 사시 불공, 법문이 이어졌으며 오후에는 108배, 금강경 독송 기도가 진행되어 참회하고 하심하는 정진의 주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쌍림열반상을 주제로 법문하신 법선스님은 “이 세상은 인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진정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며, “무명의 불빛에 가려 내 마음의 별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마음을 맑히는 자등명을 밝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4월의 이야기

선물

무명으로 전달되어도 좋을 소식,
뜬금없이 찾아와도 좋은 사람.
그렇게 감동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 선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입니까?

'마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전부를 받은 것입니다.
기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인 마음은
실로 값진 무형의 자산입니다.
유형의 것들이야
살 수도 있거늘, 그 '마음' 하나
나의 것으로 안게 되는 일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알고 계십니다.
선거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선거가
그러합니다. 그 셈할 수 없는 등식은
바로 '마음'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의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당신께서는 누구의 전부를 받아보셨습니까?
가족이어도,
연인이어도,
도반이어도 좋을
누군가의 귀한 '선물'이 되어주십시오.

글.
우현 관룡사 주지

참 다 운 선 물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매화 하나 둘 피었을 뿐인데 이토록 일렁이는 마음이라니 서녘으로 해는 저물었지만 동녘에는 매화달 두둥실 떠올랐다. 피어나는 한 송이 매화는 삶을 노래하고 또 한 송이 매화는 죽음을 말하지만 피고 지는 매화 속에서 매실의 결과를 기약하니 옛 사람 매화의 다른 이름을 윤회매라 말한 이유를 알겠구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형과 무형의 많은 것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단지 그가 지닌 특정 지을 수 없는 기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스한 느낌을 주니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부처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풍기는 기운만으로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니 이런 부류의 사람은 파순이라 할 것이다. 풍기는 기운만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도 하니 평소의 마음 씀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할 것이다.

선물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봄날에 피어나는 꽃들의 웃음 속에서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느끼고 삶의 현장 속에서 찰나의 여유로움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어울릴만한 무엇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선물일 것이다.

절집에서는 참다운 선물 베풂과 나눔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 세 개의 수레바퀴가 모두 청정해야 참다운 나눔이니 그것을 삼륜청정이란 한다. 첫째는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선물을 하게 되면 그 반대의 경우가 생겼을 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근래 매스컴을 장식하는 연인들 사이의 문제도 선물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물건의 수준을 보고 평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물건이 순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댓가를 바라는 선물 즉 뇌물을 말한다.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선물에 댓가를 바라는 탐욕의 마음을 담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진동할 것은 분명할 것이다. 사랑과 그리움 존경과 감사의 마음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참다운 선물이라 할 것이다.

꽃들이 만발한 봄날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그 사람에게 어울릴만한 무엇인가를 고를 때 그 순간의 설렘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선물하는 사람이나 선물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한 선물을 기대하며

우현스님

동진 출가해 1996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강백 월운 스님으로부터 전강 받았으며 송광사, 극락암 등에서 수선안거 후
통도사 승가대학 교수사와 교무국장 역임
현재 창녕 관룡사 주지

글.
송주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마 음 이 담 긴 선 물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담겨져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평소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을 주고 싶어졌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얼굴 사진을 찍어서 선물로 주는 것"이었다. 얼굴 사진에는 찍히는 사람의 마음이 표정으로 담겨져 있고, 동시에 찍는 사람의 정성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찍고 찍히는 두 사람의 마음이 좋은 인연으로 만났을 때 서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카메라를 들이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좌절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그러던 중 지금부터 6년 전 즈음에 어느 경전 공부모임에 강의하러 갔다가 동참하신 불자님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호기로운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역시나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자신의 얼굴을 찍는데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거사님 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멋있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수업을 마치고 법당과 절 마당에서 세 사람을 대상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찍어 보았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고 만족할만한 사진 몇 장을 인화하여 다음번 공부모임이 있는 날 만나서 서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 때 사진 속 주인공 중의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 골라내더니 크게 확대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교수님, 영정 사진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껏 살면서 내 장례식에 쓸 만한 사진 한 장이 없었네요."라고 하였다. "아이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대답은 하였지만 다음번 강의시간에 큰 사진으로 몇 장을 다시 만들어 주었다.

그 후 6년간의 경전 공부를 마치고 지난해 연말 종강을 맞이하였다. 그간 그 거사님은 거의 빠짐없이 강의를 들었고, 열심히 질문도 하였다. 그런데 종강 날 참석하지 못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보살님에게

안부를 물었더니 앓고 있던 지병이 깊어져서 사찰의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순간 이 종강과 함께 그 거사님도 인생을 마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줄기 일어났다 사라졌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살님에게 "지금 문병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직은 살살 걸을 수 있으니 찻집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바로 만나기로 하였다.

함께 공부한 회장 거사님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가면서 적은 금액을 넣은 봉투를 준비하였다. 그것이 당시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거사님을 만나 보니 병은 깊고, 인생에 회한은 많은데…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 왔다. 마치 내가 임종을 앞둔 것과 같은 아픈 마음이 밀려왔다.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런데 그 거사님의 반응이 의외였다. 더 이상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였는데도 너무나 담담한 모습으로 말하였다. "교수님! 제가 그 동안 시詩를 써왔습니다. 혹시 그 시를 읽어 보시고 괜찮으면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수업시간에 몇 번 자신의 시를 소개한 적이 있어서 그분이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있었다.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시를 쓰실 여유가 있으시네요. 열심히 치료하시면서 시를 쓰시면 책을 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제가 죽은 뒤라도 시집詩集 한권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때다 싶어 봉투를 내밀며 "작은 정성인데 책 내는데 사용하십시오."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라면 부담되어 못 받는데 교수님이 주시니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노자 돈으로 잘 쓰겠습니다."라고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는 윤회는 어떻게 하는지, 윤회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 동안 질문을 하였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구절 설명해 주었다. "사람은 죽어서 어두운 곳으로 가기도 하고, 밝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곳으로 가기도 한다. 가장 바람직한 곳으로 가는 사람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버린 사람이다." "중생은 집착과 분별에 끄달려 윤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보살은 원력으로 자신이 태어날 곳을 정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게 한 시간여의 만남을 뒤로 하고, 그 거사님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얼마 후 보살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교수님이 찍어 주신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모시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누군가와 이별을 고했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계속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떠나가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한 줄기 망상을 일으켜 본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선물 하나 줄 수 있을까?" 역시 내가 내린 답은 하나다. "행복한 미소가 담겨져 있는 사진 한 장 만들어 주고 싶다."

송주 김응철
행정학박사, 현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불교인재원 원장, 불교신문 논설위원,
불교학연구회 편집위원, 진관무위원 감사 등으로 활동 중

글.
정상도 국제신문 논설위원

세 상 손 님 의 버 킷 리 스 트

이런저런 일로 설악산雪嶽山을 열 번도 넘게 찾았으나 대청봉大靑峰에 오른 적은 없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청봉보다 꼭 오세암五歲庵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생전에 평탄한 손자의 앞길을 빌며 수차례 봉정암鳳頂庵에 다녀오셨던 일 때문인지, 고승이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한용운韓龍雲이 머물며 '님의 침묵'을 발표했던 백담사百潭寺가 눈에 밟혀서인지 알 수 없다. 동화작가 정채봉의 동화 '오세암'도,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같은 이름의 영화도 귓등으로 흘렸던 터다.

꼬집어 이유를 찾지는 못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요즘 말로 하면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 버킷 리스트(Bucket list)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다. 그래서 작정하고 오세암에 갔던 때가 2년 전인 2014년 가을이었다. 부산에서 속초까지 하루, 속초~오세암~속초에 하루, 부산으로 돌아오는 데 하루씩 잡아 2박 3일 넉넉한 일정이었다.

속초 숙소에서 새벽같이 자동차에 올라 인제군 용대리 백담사 입구 주차장에 도착한 뒤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백담사 경내에 발을 들여놓으니 겨우 동이 텄다. '대청봉에서 시작해 작은 담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 절을 짓고 백담사라 불렀다'는 전설을 음미하며 단풍잎이 떨어져 더 좋은 백담계곡을 3㎞가량 거슬러 올라가 영시암永矢庵에 닿았다. 이곳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때까지 '이제라도 봉정암으로? 아니 무조건 오세암이지!' 하며 몇 번을 망설였다. 일행들을 고려해야 했다. 영시암에 도착한 일행은 모두 8명이었다. 부산에서 넷, 서울에서 한밤중에 출발해 백담사 입구 주차장에서 합류한 넷. 부산에선 집사람과 장인 장모, 서울에선 처제 부부와 처조카 둘.

그랬다. 백년손님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설악산 단풍놀이를 하는 자리에 처제 식구들이 동참한 것이다. 소박한 버킷리스트 해결 잔치인 셈이다. 칠순을 넘긴 장인은 백담사도 처음이었으나, 칠순을 바라보

는 장모는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수차례 봉정암에 올랐단다. 그제야 "오래전부터 오세암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함께 그 소원을 이뤄 기쁩니다"라고 실토했다. 마음이 후련해졌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다. 두 어른 모두 이런저런 일로 병원 신세를 져왔던 터라 발걸음이 걱정됐지만 생각보다 산행이 순탄했다.

오세암을 지척에 둔 마지막 고갯길에서 숨 고르기를 할 때였다. 들뜬 표정의 등산객 서너 명이 샛길에서 내려왔다. "거기 보물이라도 묻어두고 오는 길입니까"하고 물으니 "만경대萬景臺가 지척입니다. 한 번 가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처럼 만경대에 오르는 순간 놀랐다. 용아장성, 공룡능선 등 내설악 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건너편에 오세암이 손에 잡힐 듯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 오고자 오세암이 그렇게 뇌리를 떠나지 않았나, 백년손님에게 주는 설악산의 선물인가' 싶었다. 오세암에서 백담사로 돌아오며 이 절에 얽힌 이야기를 곱씹었다.

643년(선덕여왕 12) 자장율사가 창건할 당시 관음암觀音庵이던 절 이름을 오세암으로 고쳐 부르게 된 연유다. 다섯 살짜리 동승이 폭설 속에서 부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전설이다. 한겨울에 산 아래 내려갈 일이 생긴 승려가 폭설에 발이 묶여 봄이 되어서야 겨우 암자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동승 걱정에 속이 새카맣게 탄 승려는 멀쩡하게 암자를 지키고 있는 동승을 보고 놀랐다. 겨우내 혼자 암자를 지킬 수 있었던 연유를 물으니 동승은 "관세음보살이 때마다 찾아와 보살펴 주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감동한 승려가 절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다.

묵묵히 산길을 내려가는 두 어른의 뒷모습을 보며 '진심이 통했다'는 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요즘은 또 다른 버킷리스트를 해결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 '논어論語' 일독이다. 논어는 첫머리 학이學而편부터 말미 요왈堯曰편까지 수미일관 인仁을 강조하는 대서사시라 일컬어진다.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논어나 논어와 관련한 책을 10권 이상 손에 쥐었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논어를 다 읽은 뒤에는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뛰는 자도 있다"는 정자程子의 말처럼 제대로 그 의미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구 하나하나를 새긴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는 공자의 말씀과 주자朱子의 해석을 읽으며 무릎을 친다. 주자는 학學이란 본받는다는 뜻이고, 습習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니, 배우기를 그치지 않음을 마치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명나라 학자인 등림鄧林이 쓴 비지備旨를 해석하는 식이다.

'인생은 나그넷길'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에 왔다가 이름을 남기고 떠나는 손님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天下第一書'라 불리는 논어는 세상 손님에게 인생의 답을 찾아보라고 권한다.

정상도
국제신문 논설위원
한국기자협회 부산시회장 역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2회 수상
일경언론상 수상

글. 사진
선우향 등불 편집실

귀한 손님 대접하듯 정갈하게 차려진 공양

산 깊은 암자에서 누린 눈과 입의 호사

영축산 백운암 공양간

땅과 하늘, 해와 어둠, 바람과 비,
농부의 땀이 만들어 낸 공력의 무게가 자그마치 일곱 근이다.
쌀 한 톨의 무게가 꼭 그만하니 옛사람들은
이를 일러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 했다.
어느 노장 스님은 수채통에 버려진 밥알을 다시 씻어 드시며,
공양간 소임자들에게
서릿발보다 엄한 무언의 경책을 내렸다 한다.
쌀에 대한 감사의 무게가 이처럼 지중했고
한 끼 공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지극했다.

자유자재 걸림 없는 흰 구름도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데, 온갖 세상일에 걸려들어 한 발 내딛는 일조차 쉽지 않은 범인이야 일러 무엇할까.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니 앉아 쉴만한 곳을 저절로 찾게 된다. 대체 부처님은 하고많은 곳을 두고 무엇 때문에 저 상상봉 꼭대기에 앉아 염화미소를 전한단 말인가. 옛스님은 또 무슨 깊은 뜻이 있어 심심산중에 정법안장의 터를 마련했단 말인가. 원망이 깊어질 밖에.

산길을 오르고 또 올라도 백운암을 영접하는 일이 쉽지 않다. 빽빽한 나무와 무심한 바위만 제 자리를 지킬 뿐 수행처의 위용을 드러낼 뜻이 없다.

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몸이 느끼는 고통도 비례한다. 더 가빠지는 숨소리, 떼기 어려운 발걸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다. 마음은 오히려 잔잔해지고 머릿속에 들끓던 생각의 잔해가 사라졌다. 그리고 걷는 일에 집중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산길을 걷는 일에 익숙해질 때 쯤 불현듯 백운암과 마주했다. 신라 진성여왕 6년 (892년) 조일대사가 처음으로 등불을 밝혔다는 백운암. 호호탕탕하면서도 고요한 기운이 적멸의 기쁨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니, 천 년 전 조일대사가 창건한 이래 수많은 선승들이 수행처로 삼았다. 현재는 진목스님이 3년간 무문결사에 들어가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의 맥을 잇고 있다.

과연 대웅전 마당에 서서 영축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맛이 호기롭다. 구름과 벗할만하고 산기슭을 몰아치는 바람과 언쟁을 벌일만 하다. 그러나 세상사 열 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는 법이다. 수행처로 손색없는 백운암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공양간 살림살이다. 지금은 공양물이나 식자재를 운반하는 모노레일이 설치돼 지고 나르는 불편함이 해소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백운암에서

공양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다. 아주 오래오래 전에는 보살님들이 산 밑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해서 스님을 시봉했다고 한다. 쌀도 좋고 보리도 좋은데, 마을사람들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양식을 얻어서 올라오면 캄캄해져서야 백운암에 도착했다. 한 톨 한 톨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고 한 끼 공양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님들은 혼자서 손수 공양을 해결하며 수행에 전념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영축산 백운암이 세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수행처로 이름이 높아지면서 방문객들도 많아졌다. 마음씀이 엽렵한 이들은 백운암에 올 때면 일회용 부탄가스, 식용유, 밀가루 등등을 배낭에 넣어왔다. 아궁이 불을 대신할 휴대용 가스버너가 등장했는데, 공양 때마다 조리를 담당하는 최고의 도구였다. 게다가 공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산 밑에서 직접 이고지고 날라야 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식재료가 늘 귀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대중들을 위한 공양간 환경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태봉스님(백운암 감원스님)이 공양간 불사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그래서 7년 전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현대화된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특히 4년 전에 설치된 모노레일은 공양간에서 필요한 웬만한 것들은 별 탈 없이 조달해주고 있어 대중들의 공양이 한결 쉬워졌다.

아무리 공양하는 일이 예전에 비해 쉬워졌다고 하나 산꼭대기 암자에서 잘 갖춰진 공양상을 받는 것은 황송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 톨의 쌀알이 일곱 근 무게임을 일러주는 선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백운암 공양간에 앉으면 저절로 감사함이 인다. 그런데다

앞에 놓인 상차림이 아주 정갈하다. 상차림만 봐도 살림 사는 이의 매운 손끝이 느껴지는데 옹기그릇에 담아낸 찬들은 나무랄 데 없이 단정하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요리하는 이의 정성과 실력이다. 차려내 온 음식 하나하나가 좋은 재료에다 정성이 듬뿍 담겨있으니 눈이 호사를 누린다. 색감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찬과 한 끼만 먹어도 금방 몸이 좋아질 것 같은 담백한 맛이 왕후의 상이 따로 없다.

묵은지에 따뜻한 국만 있어도 공양하는 기쁨이 차고 넘칠 터인데, 잘 차려진 정갈한 공양을 마치고 보니 귀한 대접 받은 손님처럼 마음에 포근함이 스민다.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쌀 한 톨이 일곤 근의 무게를 지녔음을 깨달아야 하고 노스님이 채수통에서 밥알을 건져 드신 까닭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당신을 친견하고자 이들에게 숨이 차도록 영축산 기슭을 걷게 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여기저기 진달래가 피었다. 나무에도 물이 올라 여린 잎들이 뾰족뾰족 움을 틔운다. 이런, 바람도 시원하다. 분명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고 느낌이다. 대체 달라진 게 무엇이란 말인가.

일러스트.
정기란 불교일러스트 작가

글.
안필섭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인도 불교의 역사 _

세계를 만든 자와 독화살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곳을 우리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세계는 '나'와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을 합한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일단 '세계'는 범위가 넓으니 좀 좁혀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중 하나인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님입니다. 즉, 나의 원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지요. 하지만 당장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지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와 같이 끝도 없는 순환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중 하나인 '나'의 원인을 찾지 못했으니 결국 세계의 원인 또한 위의 방법으로는 찾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즉,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계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 누군가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일 것입니다.

|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부처님(인도 국립박물관 소장)
사진출처 : By Nomu420 (자작) [CC BY-SA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via Wikimedia Commons

① 한 명이 만들었다.(일원론)
② 두 명이 만들었다.(이원론)
③ 여러 명이 만들었다.(다원론)
④ 아무도 만든 것이 아니다.(무원론)

이처럼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답은 네 가지 중 하나라는 말이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해보면 한 명이 만들었다고 해서 일원론, 두 명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원론, 여러 명이 만들었다고 해서 다원론, 아무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원론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일원론, 이원론, 다원론, 무원론이라는 말은 결국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답인지 각각 따져봅시다. 먼저 한 명이 만들었다는 경우는 그 답이 가장 간결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포함한 이 모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를 만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의심하기보다는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 한 명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한 명을 우리는 흔히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한 명이 만들었다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의 원인이 그 하나의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인간의 병, 악한 심성 같은 것도 모두 그 하나의 존재가 원인이 된다는 말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을 만들면서 병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되므로 왜 그러한지 시원하게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두 명이 만들었다는 답은 어떨까요? 앞서 나를 만든 것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즉 두 명인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정답일까요? 두 명이 만들었다는 답은 한 명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 부정적인 것은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몰아넣으면 간단합니다. 마치 자식의 허물에 대해 부모가 서로 상대방을 닮아서 그렇다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왜 두 명인 것인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한 명이 만들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몰라서 그렇지 그 두 명을 만든 것이 또 다른 한 명인데, 그것을 몰라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이라 비아냥거린다면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인 그 둘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만들었다는 경우는 마치 현대 과학에서 사물이 분자, 원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미립자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데,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과 같이 순환의 오류에 빠지게 되며, 특히 정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경우는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의 시초를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로 보는 경우와 흡사합니다. 즉,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빅뱅이라는 시점을 거치면서 '유有'의 상태가 된다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그 '무'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에 답변으로 가능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고 모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해 낸 모든 사상과 철학은 반드시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것이 옳다는 가정 하에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러한 견해에 반하여 어느 하나의 경우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러한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설파한 사상과 철학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중아함경』「전유경箭喩經」에는 '세상은 영원한가? 세상은 끝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부처님께 하는 만동자鬘童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계의 원인에 대한 네 가지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답을 택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만동자는 쏟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전에 혹 너에게 '세상은 영원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좇아 범행을 배우라'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등등을 알아보려 한다면 알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안필섭安必攝
대구 출생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학부, 석·박사 졸업(철학박사)
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현. 한국요가학회 학술이사

통도사 합창단 단원모집

영축총림 통도사 합창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전달하는 신행모임입니다.
장엄한 법석에서, 아름다운 야단법석에서
혹은 지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정중한 의식에서 소리공양을 올릴
귀한 인연을 지어 보시기를 바라옵니다.
통도사 합창단에서는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 상** 불교와 음악에 관심 있는 통도사 신도 및 일반불자(약간명)
- **모집기간** 상시모집
- **활 동** 사중 정기 법회 및 행사시 음성공양, 대외 합창경연대회 참가
  음성공양을 통한 불법홍포 및 통도사 홍보
- **문 의** 지휘자 : 010-4558-8728, 포교국 : 055-384-8380

영축총림 통도사 청년회 법우 모집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불보종찰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신실한 신행활동을 이어갈 청년회원을 모집합니다. 통도사 포교국 산하단체인 청년회원은 청년회 법회에 적극 참여, 청년불자로서의 신심을 증장시키게 되며 사중의 크고 작은 법회와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영축총림 청년회원이 되어 청년 법우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올곧은 신행활동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통도사 포교국 (055-384-8380)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 불사 권선문

영축총림 통도사는 1300년 전통의 수행가풍을 이어온 수행도량입니다. 영축산의 위용과 함께 수행풍토를 이어가고 있는 통도사에서는 승가의 수행 외호와 함께 재가불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 불사에 뜻을 모으고 2014년 6월 21일 기공식을 봉행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비와 수행, 자선의 마음을 함축한 요양병원을 계획,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통도사가 전 대중의 뜻을 모아 착수하게 된 불교 요양병원 건립에 여러 불자님들의 수희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신앙심 고취와 더불어 향기어린 봉양의 의미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엄전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농협 351-0655-3958-23 (예금주 : 통도사)

병원불사 내역

일병동 동참	일억원
특실 동참	삼천만원
진료실 동참	천만원
일병상 동참	백만원
의료기기 동참	오십만원
휠체어 기증	삼십만원

※ 불사금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 동참금은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통도사 요양병원 법당
약사여래 삼천불 봉안 불사

사부대중의 원력모아 요양병원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약사여래 삼천불전을 건립하여 약사여래
삼천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가정 가정 무루 동참하시어 가족분들의 무병장수와
병고쾌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동참내역 원불 조성 소불 - 일백만원, 대불 - 일천만원
불사문의 기도접수처(화엄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1662-8624-1(예금주 : 통도사)

글. 사진
조승희 연꽃여행 대표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나선

옛 시킴왕국 히말라야의 도시 인도 갱톡으로의 홀로여행

작년 7월 말 나는 한 달간의 일정으로 인도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직업이 여행사 대표 인지라 20년 이상을 지구 곳곳에 수많은 여행을 하였지만 이번 여행길 만큼 설레는 적도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것이 고객을 인솔하는 여행이 아니라 배낭을 짊어진 그야말로 나 혼자만의 여행이었기에 그랬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동경하는 인도 또 그 중에 히말라야의 옛 사라진 시킴 왕국의 터전을 찾아나서는 여행이니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티벳, 부탄, 네팔과 국경을 가까이하고 있는 시킴왕국은 히말라야 고지대 속에서 약 300년동안 이어져 오다 1950년 인도의 보호국이 되고, 1975년 인도에 합병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인도의 시킴이라는 한 주로서 그 이름만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주도主堵로서 갱톡(강토크라고도 함 - 산꼭대기라는 뜻)이란 도시가 히말라야 속에서 화려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명의 라마승려로 인하여 세워진 시킴왕국은 꽤나 큰 왕국이었습니다. 영토가 지금의 네팔 일부와 티벳, 부탄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여러 번의 전쟁 패배로 작은 왕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당시 티벳정부는 시킴을 속국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영국이 개입하자 시킴으로 군사를 파병하였지만 영국에게 패배한 후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47년 인도의 독립과 더불어 인도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시킴에 살고 있던 가난한 네팔인들의 주도로 반란이 자주 일어나자 시킴의 국왕은 국가의 통치를 인도에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게되고, 1975년 시킴은 국민투표를 한 결과 97%의 인도 합병 찬성으로 인하여 인도의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티벳을 합병한 중국은 시킴지역이 원래 티벳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인도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인도와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지요. 하여 외국인이 여행을 하려면 인도 비자 이외에 여행허가서를 따로 받아서 갱톡 진입 입구에서 한 국가의 입국심사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지역이 무질서 속의 질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곳 갱톡만은 그렇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고, 경찰의 권위가 매우 높아 보였으며 거리는 아주 깨끗하였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접근성이 어렵고 여행이 불편한 갱톡을 이번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부처님께서 카필라바스투성에서 출가하신 후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시며 설산에서 6년간 고행을 하셨다는 경전 기록에 의미를 두어서 였습니다.

고행을 하셨다는 설산이 정확이 어디인지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설산이라 함은 히말라야 산을 뜻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고, 또 그 시대에는 걸어서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걸어서 히말라야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반경 중에 그 당시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 스승을 찾기 위해서라면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 생각해 볼 때, 이곳 시킴왕국의 근처가 부처님께서 걸어서 찾으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는 나 혼자만의 가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순전 나 혼자만의 가설인 것이지 어떤 학설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컨대 부처님께서 당시 6천미터가 넘는 그야말로 지금의 전문 등반 산악인이나 오를 수 있는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 까지는 가실 리가 없다는 나의 생각과 또한 당시 수행자들도 산소가 희박한 높은 고산지대에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갱톡까지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하였습니다. 우선 부산에서 일본항공 비행기로 동경까지. 다시 동경공항에서 7시간을 대기한 후 델리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델리에서 2박을 한 다음, 나의 인도 의형제 아미타브가 있는 파트냐로 13시간 기차여행을 한 후 도착하였습니다. 아미타브의 집에서 5일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의 득도성지 부다가야에서 이틀을 머문 후 실리구리라는 도시로 14시간 기차이동을 하였습니다.

실리구리역에서 짚차를 타고 갱톡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이 놈의 짚차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승객이 다 차면 출발하는 형태인데 수 시간을 기다려서 7명의 손님을 태우고 갱톡으로, 끝이 가물가물 보이는 히말라야의 낭떠러지 절벽길을 약 100Km정도 굽이굽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긴장상태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감각이 아예 제로인 듯 해 보였습니다. 내 앞에 쇠파이프로 된 봉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세게 잡고 있었던지 나중 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너무 위험해 보이니 좀 천천히 가자고 하니 자기가 이 길을 13년이나 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염려 말라는 겁니다. 사고? 이 엄청난 절벽에서 사고의 의미는…. 곧 죽음인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갱톡이란 도시는 참으로 희안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히말라야의 산속 깊숙이 그다지도 큰 도시가 자리 잡고 있음에 놀랐고… 또 구름위의 수 많은 집들과 건물들….

어디서나 불쑥불쑥 보이는 저 아름다운 자태의 칸첸중가….

그리고 다민족의 피가 섞여서인지 거리엔 늘씬하고도 예쁜 얼굴을 뽐내는 미인들이 매우 많아보였습니다. 남걀사원에서는 천 명이 넘는 티벳승려들이 동

시에 앉아서 법회를 보는 광경 또한 이례적이었고, 요가를 하는 수행자들도 많이 보였으며 수행자들이 목에 걸고 있는 히말라야산 루드락샤라는 장신구도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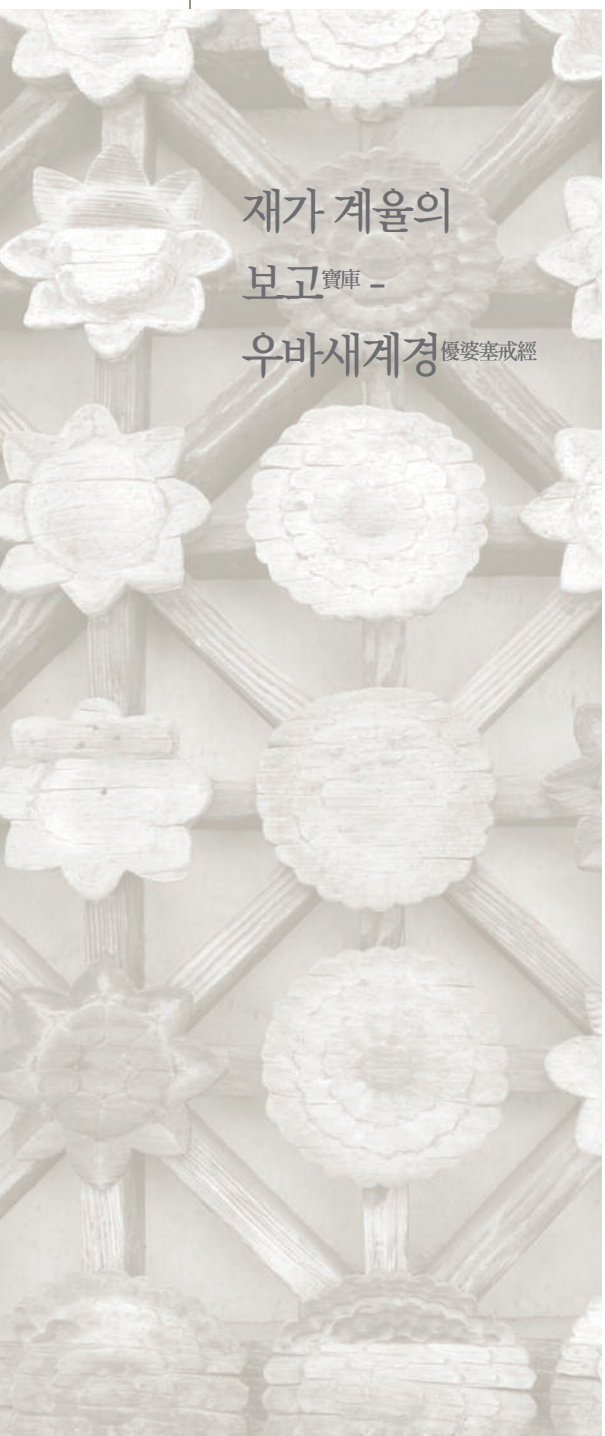
영어를 잘 구사하는 한 수행자와 친해져서 한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수행자의 말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이곳 시킴지역에 수 년간을 기거하시면서 요가를 하였고 그 자세가 어렵게 보여 고행을 하였다고 표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장신구인 루드락샤를 평생 목에걸고 다니셨는데 이것이 지금의 염주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전혀 근거 없어 보이는 주장은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돌아오면서 난 귀해 보이는 히말라야산 루드락샤를 가져와 인연있는 분들께 나누어 드렸는데 매우들 좋아 하였습니다.

갱톡에서 2주간을 보냈습니다. 영어 구사가 능통한 택시 운전기사를 만나 4일 동안은 아예 대절을 하여 함께 다니다 보니 절친이 되기도 하였고, 호텔 사장님과도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글의 지면 할애가 한정이 되어 있어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에피소드를 소개할 수 없음이 매우 애석하지만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께 어쩌면 부처님께서 살아 생전 설산고행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조금은 생소한 갱톡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승희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인 명문여행사에서 다년간 인도성지순례 전문 소임을 했고 현재는 연꽃여행 대표를 맡고 있다.

글.
덕문 영축총림 율학승가대학원장



재가 계율의 보고寶庫 –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제3 해탈품解脫品
- 바라밀 완성을 쉽게 하는 마음

전前품인 비품悲品에서는 비심을 닦으면 베풀기 어려운 것도 베풀 수 있고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으며 하기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게 되므로 온갖 선한 법은 비심이 근본이 되며, 비심을 닦는 사람은 수미산과 같은 악업을 부수고 오래지 않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고, 지은 선업이 적을지라도 과보로 얻는 것은 수미산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중생을 자비심으로 살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함을 설명하셨으며, 해탈품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이 비심을 닦으면 이 사람은 모든 법의 체體인 해탈분解脫分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체體는 어떤 것입니까?"
"선남자여! 몸과 입과 뜻을 가리킨 것인데 이 몸과 입과 뜻은 방편에 따라 얻는다. 방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귀로 듣는 것이고, 둘째는 사유思惟하는 것이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둘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셋째는 많이 듣는 것이다."

해설

부처님께서는 해탈하는 방법을 문·사·수 삼혜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수혜修慧는 은혜를 베푸는 것(惠施), 계율을 지키는 것(持戒), 많이 듣는 것(多聞)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해탈분을 얻는 경우도 일정하지 않은데 해탈분법을 얻는 요긴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량없는 세상에서 한량없는 재물을 한량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더라도 해탈분법을 얻지 못하지만 어떤 이는 한 때 한 웅쿰의 보릿가루를 한 명의 거지에게 베풀어도 그와 같은 해탈분법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곳에서 계율을 받아 지녀도 해탈분법을 얻지 못하지만, 어떤 이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팔계八戒를 지키고도 해탈분법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십이부경을 수지독송 하고도 해탈분법을 얻지 못하지만 어떤 이는 사구게 하나만 읽고서도 해탈분법을 얻는다. 이는 중생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누구든지 일심으로 생사의 허물과 열반의 안락함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비록 혜시와 지계와 다문이 있어도 마침내 해탈분법을 얻지 못하지만 생사의 싫어하고 열반 공덕의 안락함을 깊이 보는 사람은 비록 베푼 것이 적고 계를 지킨 것이 적고 들은 것이 적어도 해탈분법을 얻는다"

해설

이처럼 무량한 세월에 걸쳐서 이룰 수 있는 수행의 과위도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하면 한 순간에 이룰 수도 있으며, 어떤 방법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해탈분을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때나 연각이 세상에 출현하신 때나 아가니타천(색구경천·유정천)이 해탈을 설할 때에도 해탈분을 얻는데, 부처님께서도 처음 발심했을 때 부처님이나 벽지불을 보지 못했으나 정거천淨居天이 해탈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발심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해탈분이 있는 사람과 해탈분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이러한 법은 두 종류의 사람이 얻을 수 있는데 재가자와 출가자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 듣고서 받아 지니는데, 삼악도의 고통을 듣고서 두려운 마음에 몸의 털이 모두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재齋와 계戒를 굳게 지켜서 작은 죄일지라도 쉽게 여기지 않으니 이러한 사람은 해탈분법을 얻는다.

선남자여! 외도들이 수명이 무량겁인 비상비비상처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해탈분법을 얻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이 아비지옥의 큰 고통을 받으며 무량겁을 지나더라도 해탈분법을 얻는다면 이 사람은 열반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선남자여! 그러므로 나는 웃다까마라뿟따에게는 불쌍한 생각을 내지 않는다.

선남자여! 사리불 등이 육만 겁 동안 보리도를 구하였으나 해탈분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퇴전하였지만 연각보다 낫다. 선남자여! 이 법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하·중·상인데 하는 성문이고 중은 연각이고 상은 부처이다."

해설

이 내용은 세상 그 어떠한 일보다 해탈분법을 얻는 일이 소중함을 강조한 것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발심하고 정진해 나아가는 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해탈분법의 방편으로 제시하신 문혜·사혜·수혜를 열심히 실천하는 일과 수혜를 다시 혜시·지계·다문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실천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혜시·지계·다문은 바라밀실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삶의 목표를 깨달음 성취에 두고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자재하게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숙업을 뛰어 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업에 끄달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원력을 성취시키는 삶이 성문, 연각보다 수승한 부처의 길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길은 바라밀 실천을 통해 가능해 집니다. 세상에 완연한 봄기운처럼 보리도를 향한 신심이 화사하게 피어났으면 합니다.

덕문스님
중봉성파스님을 은사로 통도사 득도. 월운 강백스님에게 전강
철우 · 혜남율사스님에게 전계
사미계 수계산림 유나
현 단일계단 교수사 · 갈마사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계단위원회 위원

글. 사진
이병인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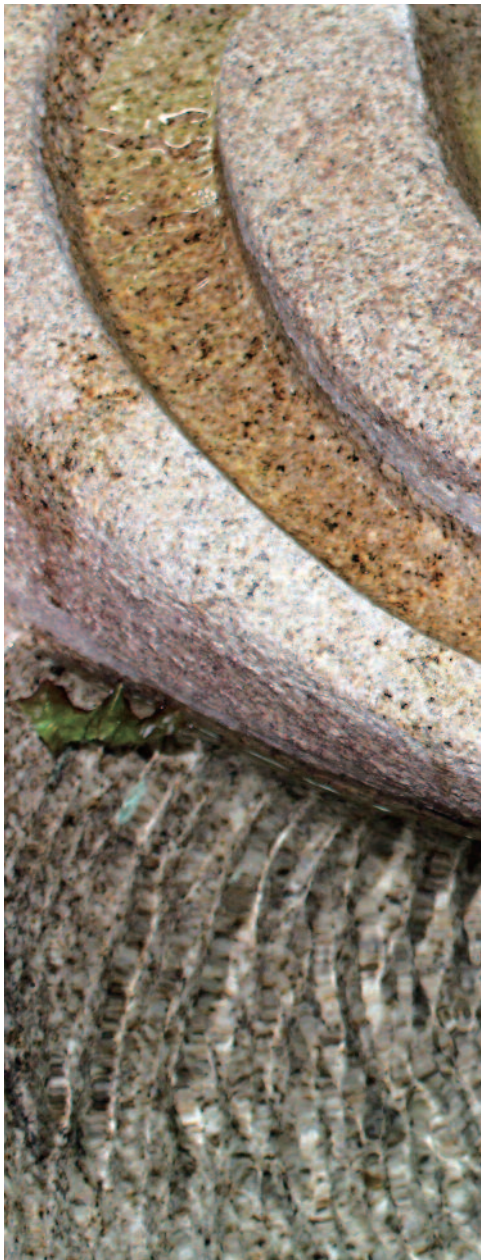
통 도 사 의

사 찰
약 수

통도사는 잘 알다시피 신라시대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창건설화에 독룡을 물리치고 세웠다는 이야기에서 보듯이 예전엔 물이 많은 습원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점은 오늘날에도 통도사 경내 곳곳에 습지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통도사경내지는 영축산 정상으로부터 산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600만 평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으로부터 능선자락 그리고, 숲과 절로 이어지는 곳곳에는 18곳의 암자들이 있고, 그렇듯이 곳곳에 좋은 샘물들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통도사 사적기에 의하면, '통도사의 북쪽에 있는 동을산冬乙山의 차마을茶村은 차를 만들어 절에 바치는 곳所이다. 절에 바치던 차아궁이茶因와 차샘茶泉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남아있으니 후인들이 다소촌茶所村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도사는 사적기에 다촌茶村, 다천茶泉 등의 말이 언급되어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옛 차 성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주위와 산중에 일부나마 차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그렇듯이 많은 샘물들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여름에 통도사에 대한 생태조사가 있어 둘러보면서 사찰약수들을 같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600백만 평에 이르는 널직한 영축산 줄기 아래 각 암자마다 좋은 약수들이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약수물로는 안양암과 비로암약수, 그리고



| 자장암 수곽수

영축산 통도사는 불보종찰佛寶宗刹로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寂滅寶宮으로 유명합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큰 품격과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영축산靈鷲山이라는 큰 산자락아래 산과 나무들, 그리고, 숲과 샘들이 잘 어우러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통도사 팔경通度寺 八景 등으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경관자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질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도사는 청정한 수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통도사의 맑고 깨끗한 약수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 백련암 수곽수

옥련암과 백련암약수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선방 스님들이 즐긴다는 지장약수와 백운암 위 산중약수 등이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지역 등 통도사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물통을 가지고 와서 절에도 들르고 약수도 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절에서 사용하는 물은 큰 절 넘어 극락암으로 가는 산입구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절에서 산내의 18개 암자 모두 영축산 줄기에서 발원하는 수원이기에 수질적으로 봐서도 매우 청정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축산 정상에서 통도사 산문에 이르는 지역이 잘 관리되어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어서 강수시에 빗물들이 그대로 스며들고 고여서 흐르는 산중수山中水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트랜드의 유명한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물의 중요성을 알기에 공장이 있는 유역전체를 사서 청정지역 그대로 보존시킴으로써 위스키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대부분의 산중사찰은 경내지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수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에 통도사의 경우에도 곳곳에 좋은 약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것 같은 비로암의 산정약수가 좋습니다. 영축산의 중앙 깊은 곳에 위치한 비로암은 현 통도사 방장이신 원명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곳으로서 말 그대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이고, 앞으로 펼쳐지는 풍광이 참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경치 좋고, 깨끗한 곳에 좋은 약수가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비로암 산정약수山精藥水'는 말 그대로 산의 정기를 간직한 약수로서 극락암과 백련암의 산정약수와 같이 경봉스님께서 쓰신 석비 옆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뚜껑을 하고, 그 안에는 용머리 형상의 석물로 물을 토해내고, 바닥은 석조로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잘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장암의 약수도 금와보살이 나오는 바위의 감로수도 좋고, 최근 자장전 뒤의 바위에서 나오는 약수를 잘 정리하여 약수로서의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안양암과 옥련암, 그리고 백련암의 약수는 일반사람들이 쉽게 받아 갈 수 있도록 수도꼭지로 만들어서 수량도 많고, 수질도 매우 양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도사지역의 사찰약수의 수질은 수소이온농도(pH)가 5.8 - 7.2로서 중성전후이고, 경도도 2-57mg/L 정도로 매우 낮은 단물이고, 불순물이 없는 청정한 산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타 대장균 등 미생물오염도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과 농약 등 합성화합물질 등도 나타나지 않는 등 순수純水에 가까웠습니다. 어찌 보면 시중에서 파는 생수生手보다 나은 샘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도사의 사찰약수들의 수질특성들을 보다 체계적

| 비로암 산정약수

| 옥련암 약수(상), 안양암 약수

| 자장암 감로수

으로 조사해서 자료로 만들어 통도사 약수들의 장점들을 잘 살려 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특히 수곽수 등에 대한 청소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절을 찾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통도사는 불보종찰佛寶宗刹이라는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자장율사께서 창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룩한 불교문화유산, 그리고 영축산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유산들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지역입니다. 아무쪼록 역대 조사님들의 원력과 노력으로 이어져 왔듯이 지금의 우리들도 소중하게 아끼고 잘 살펴서 자연 그대로의 장점을 살려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통도사에 가고자 합니다.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궁에 참배하여 마음을 맑게 하고, 통도사의 맑은 물 한잔을 마시며,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의 본향本鄕'인 통도사의 정기를 가득 느끼고자 합니다.

이병인 교수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공학박사,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영축환경위원회 위원 등 40여 환경문화관련 자문

통도사·진주남강유등축제와 손잡고 문화축제로 활성화

10월 1일~16일까지… 진주성·진주 남강 일원서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지난 2000년 10월 3일 처음 만들어져 올해로 17회째를 맞는다. 이는 진주시의 대표축제 개천예술제의 특별행사로 마련되어 '진주남강국제등축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2002년 진주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가 구성되며 개별축제로 독립한 이후 내실을 기하며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가 하면, 2014년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 선정, 2015년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며 성장해왔다.

올해는 10월1일부터 16일까지 사상 최장 기간 진주성과 남강 일원을 밝히는 유등축제가 펼쳐진다. 행사 개막일인 1일 저녁 6시부터 진주성 임진대첩계사순의단 고유제를 지내고 진주시내 32개 읍·면·동의 상징등을 앞세운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이어 촉석루 맞은편 수면 특설무대에 7만여 개의 대·소형등이 점등되어 남강일원을 장엄한다. 한국등, 세계등, 창작등, 풍습등, 만화캐릭터등, 둘레길등을 비롯한 다양한 테마의 등이 진주성과 남강 일원을 장식하며 소망등 달기, 유등띄우기 등 시민참여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이 밖에도 수상불꽃놀이, 진주성 어울마당, 민속소싸움대회 등 예년에 비해 대폭 확대된 부대행사로 시민들의 눈과 발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통도사·진주시·진주문화예술재단, 진주 유등 대여 위한 MOU체결

진주남강유등을 통도사 도량에서도 만날 수 있다. 통도사는 지난 1월13일 오후 2시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진주시(시장 이창희), (재)진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용호)과 유등대여를 골자로 하는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에 진주시로부터 불교문화와 연관 깊은 중형등 20개, 소형등 30개를 연등축제 및 문화축제를 장엄하기 위해 대여하게 된다. 이번 문화축제 교류 MOU체결은 진주시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유등을 대여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오봉산
물금 용화사

용왕수륙천도방생
법회 봉행

장 소 양산 물금 용화사 도량
일 시 2016년 4월 8일 오전 10시 30분
동참금 3만원, 영가위패1위당 : 5천원
문의처 종무소 055-384-5111

천년고찰 물금 용화사에서는 대대로 지내오던 용왕수륙천도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수륙 무차 평등재를 줄여서 수륙대재(천도재)라 부르며 우리 조상님과 부모님, 친인척은 물론이거니와 부처님의 대자비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동안 혈연 위주의 세속 인연에서 벗어나 유주무주에서 떠돌아다니는 생면부지의 영혼들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천도해주는 의식이 수륙대재(천도재)입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미쳐 못 만나 유주무주에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을 위해 베풀어주는 이 수륙재의 공덕이야말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방생은 무량한 복을 짓는 일입니다. 살생을 금하는 집은 신선이 보호하고 재난과 횡액을 소멸하며, 수명을 늘리며 자손이 어질고 효순스러워 길하고 상서로운 일이 많다 하였습니다.

이 장엄한 용왕 수륙대재(천도재) 방생법회에 동참하셔서 크고 작은 원결 모두 소멸하고 온 가족이 복된 삶을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글. 사진
김정은 등불 편집실

지혜·자비·정진으로 내실 다지는 작은 학교

밀양 홍제중학교

영남알프스 자락의 재약산 기슭에 천년고찰 표충사가 있다. 표충사는 사찰 영역 안에 유생들을 교육하고 성현들에게 제사를 올리던 표충서원表忠書院이 있어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는 도량이기도 하다. 밀양 홍제중학교(교장 김원균)의 역사는 불법佛法과 선비의 기상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출발했다.

불교 종립학교인 홍제중학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교육목표의 중점을 둔다. 지혜와 자비심을 쌓아 스스로를 완성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나아가 효孝를 바탕으로 한 바른 인성 기르기에 매진하며 2005년에는 밀양교육청으로부터 '인성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교육면에서는 학생중심 교육의 기틀 마련,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2014년에는 교육부 창의수학과학교실 공모에 응모, 선정되어 학교 내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학생 1인 1테블릿 패드 보유를 현실화 하며 수업의 질을 높였다.

또한 2015년에는 2016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한 해 먼저 신청하여 교육 현대화에도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학교'를 표방하는 홍제중학교는 내실을 튼튼히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는다. 2004년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도서실 리모델링 사업, 2007년 학교 강당 리모델링, 2008년 다용도영어전용교실 사업과 탈의실 신축, 화장실 리모델링, 현관 리모델링, 주차장설비 구축, 2011년 다목적강당(홍제관) 건립 등 시설·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과 교내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밖에 가사실, 음악실, 미술실, 급식소 등 특별활동을 요하는 교실 역시 적절히 갖추고 있다.

홍제중학교에도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있고, 불교학생회가 있다.

타종교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매달 1회씩 교내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의 기초교리와 사찰예절 등을 배우고 있으며, 3년마다 수계식을 갖는다.

1년에 2번 인근 표충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여 연꽃만들기, 만다라그리기, 108배염주 및 단주 만들기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템플스테이 때는 각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학교폭력예방, 자기주도적학습, 행복교육 등 특강도 마련해 불교에 대한 종교적 부담감과 거리감을 좁히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희망자를 기준으로 진행해오던 '점심시간 108배'를 올해부터는 매주 월요일 모든 학생이 동참하여 한주를 열게 되며, 매일 정규일과가 시작되기 전 20여 분간 진행되는 '두뇌 깨우기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몸과 마음을 깨움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9월~10월에는 전교생이 통도사 자비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밀양시립노인요양원에 방문하여 주변 청소와 어르신 말벗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김원균 교장선생님이 삶의 지침으로 삼는 문구다. 선생님은, "'일일삼성一日三省(하루에 세 번씩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반성을 하라)'이라는 말과 함께 학생들에게 꼭 일러주고 싶은 말입니다. 현재의 자리에 충실하고,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참 된 사람, 큰 꿈을 가진 인재가 되기 바랍니다."며 학생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전했다.

| 홍제중학교 김원균 교장

2012년 제13대 교장으로 취임한 그는 밀양불교학생회에 가입하며 불연을 맺은 이후 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청년회 활동으로 신행을 이어온 신심 깊은 불자다. 불교종립학교의 교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비켜가지 않은 지중한 인연이다.

22년이라는 길지 않은 교직생활에 교장이라는 중책의 소임을 맡아 근무한지가 벌써 4년이 지났다고. "학생들에게는 사랑과 열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교사들에게는 귀를 열어 두고 소통하며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는 학교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원균 교장 선생님의 바람이 곧 홍제중학교의 미래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밀양 홍제중학교 : 055-352-1023)

취재. 글
김윤희 등불 편집실

불법은 강물처럼 흐르고 전법은 풍경처럼 퍼져라

부산 북구의 新포교제일도량 진홍사

낙동강 하류의 줄기가 마치 그림처럼 내려다보이는 부산 금곡동 진홍사(주지. 정법)가 지역민들과 함께 한 시간은 만 3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 내 진홍사의 인지도는 이전 개원하여 터를 잡은 시간을 훨씬 웃도는 인식이다. 이웃돕기 대중공양, 라면 콘서트, 제야의 종, 장학사업 등 그만큼 지역주민들과 나눈 것들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진홍사의 최초 출발은 부산 민락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11월 11일 민락동에 주소를 둔 진홍사가 첫 신도를 맞은 곳이 그곳이며 주지 정법스님은 그곳 진홍사에서 3년여 시간동안 포교제일도량을 일구기 시작했다. 더욱이 수화에 능한 스님은 신도들에게도 이웃한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수화를 통한 소통으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며 도심포교의 선봉장으로 우뚝 서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 사찰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통보가 답지했고 진홍사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스님과 신도들은 사찰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어렵사리 대형 건설사와의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았고 때마침 현재의 진홍사(구, 원효정사)로 이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지난 2013년의 일이었으니 햇수로 3년이고 만 2년 만에 새 주소지 금곡동에서 진홍사의 이름을 정확히 새기고 있는 중이다.

진홍사는 사실 단위사찰로서는 규모가 작지 않은 곳이다. 전각이야 대광명전과 극락보전 등 두 동에 불과하지만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전체 대지 2천여 평에 임야 2천여 평으로 아주 널직한 도량이다.

대광명전은 복층 구조의 전각으로 2층이 법당이다. 대광명전의 규모는 법회 인원 5백여 명을 수용하고도 남는 공간이다.

주불로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며 법당 중앙문을 열어제치면 바로 낙동강을 조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법회와 대규모의 강의가 설해진다.

법당에서 면면한 불법이 넘실댄다면 아래층에서는 종무 행정이 이루어지며, 불교대학 강의실이 구비되어 있고 대중공양간이 들어서 있다. 그곳이 진홍사의 성장 동력이 되는 곳이다. 취재차 방문했던 날에도 강의장 내에서는 한국화반 수강생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발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니 다도반, 합창반, 불교무용반 등 신행활동의 주무대가 그곳 아래, 위층에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진홍사에서는 염불봉사회인 진홍회와 정법불교대학이 유명세를 타는데, 진홍회는 민락동시절부터 설립되어 신도들과 그 가족친지의 장례의식에 가장 먼저 달려가 염불봉사를 하는 신행반으로 합창단과 함께 진홍사 신행의 꽃이되고 있다. 또한 정법불교대학은 기초반, 경전반, 심화반으로 나뉘어 주야5개반으로 운영되는데 총 4년 ~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끔 커리큐럼을 마련해 두었다고.

더욱이 정법스님을 비롯한 화려한 강사진을 두어 타 불교대학과는 차별화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 진홍사의 자랑이기도 하다.

진홍사가 이전개원 3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지역에서 그만큼 사격을 공고히 한데는 진홍사만의 색깔을 띠며 지역민들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것이 존재감을 높인 가장 큰 이유였다. 지역에서 이어져오고 있는 금곡장학회의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주지 정법스님은 금곡장학회에 고정적인 장학금을 출현하였고 초파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찰로 주민들에게 친숙히 다가갔다. 그리고 두 번의 초파일을 지내는 동안 넓은 도량의 이점을 활용하여 20여개의 체험부스를 마련하고 종일을 절에서 보내도 좋을 축제의 날을 만들어 준 덕이다.

그런가하면, 제야의 종을 치는 한해의 마지막 날에는 지역민들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원종을 치는 행사를 갖고 개인마다 소원을 담게 했다. 역시 주효했다. 평소 사찰을 멀리하던 비불자들까지 줄을 지어 끝없는 원願이 밤새도록 울려 장관을 이루었다는 얘기였다.

물론 정법스님은 민락동시절, 산사음악회를 도심 도량에서 가장 먼저 유행시킨 스님으로도 회자되는 주인공이다. 장기인 수화와 더불어 초파일 저녁을 수놓던 음악회는 지역민들을 포교도량으로 자연스럽게 불러들인 매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 진홍사의 진짜 자랑거리는 원효유치원이다. 원효정사 시절부터 새싹불자 양성을 위해 맘먹고 건립해놓은 원효유치원은 교육의 테마를 유아정서함양에 두고 있으며 그 예로 숲 체험을 특화시켜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과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으로 벌써 입소문을 타고 있다. 그리하여 멀게는 만덕에서도 의기투합한 학부모들이 요청을 해와 유아들을 통원시키고 있을 정도이다.

"이전 개원 3년이 되지 않은 도량에서 진정한 포교의 꽃이 피고 있는 중이군요." 라는 인사를 건넸다. "아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청년회를 만들어 청년 불자들의 터전이 되게 하고 싶고요, 문화답사트레킹반을 만들어 불교와 문화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고도 싶습니다. 새 도량으로 와 마당 축대공사를 비롯해 도량 정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해놓고 보니 역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전세대가 함께 편안한 도량을 구비해놨다는 생각에 흐뭇함이 일기도 합니다."며 만족한 웃음을 건네오는 정법스님이다.

열 아홉 살이던 때, 은사스님과 만나 출가인연을 지은 정법스님의 바람은 법명의 의미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소박한 꿈이며 원대한 바람이기도 하다. 그것이 이 땅의 승가로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최상의 룰인 까닭이다.

(부산 북구 진흥사 : 051-365-0524)

글.
전지경 문수반 교사

2016년
통도사유치원 친구들 신학기 생활을 엿보다

2016년의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숨쉬기 시작하는 3월,
우리 통도사 유치원 친구들도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합니다.
유치원의 제일 큰 맏형 7살 문수반,
이제 동생이 생겼어요. 6살 보현반, 반야반,
유치원에 처음 왔어요. 5살 마야반 친구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약속을 하나씩 익혀가며 유치원 생활에 적응해가는 우리 친구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어른을 만났을 때에는 인사를 해요

선생님들이나 어른을 만났을 때 우리 통도사 친구들은 손을 바르게 모아 합장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른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는 우리 멋진 통도사 유치원 어린이랍니다.

바르게 가방을 정리해요

우리 통도사 유치원 친구들은 못하는게 없어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가방도 바르게 정리하고 내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손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대요. 하지만 우리 통도사 친구들에게서는 볼 수가 없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손바닥, 손등까지도 깨끗해졌어요

깨끗하게 양치를 해요

싹싹 닦아라, 윗니 아랫니~치카치카 푸카푸카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스스로 깨끗하게 할거라는 일념으로 아주 열심히, 하얀 이가 돋보이네요.

배려하기

동생을 배려하는 우리는 형이랍니다.
동생들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줄 알고 동생을 보살필 줄 아는 멋진 친구들이랍니다.

원상스님이 들려주는 '이 공양'

구술.
원상스님

정리.
허미욱

사진.
최배문

쑥 털털이

겨우네 얼었던 땅에서 새싹들이 움트고 만물이 피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계절, 봄이 돌아왔어요.

우리도 이런 봄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하네요.

봄이 오기 위해선 겨울의 추위라는 고통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고뇌가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이러한 과정을 겪느라 노고가 큰 여러분에게 감사의 의미로 풋풋한 봄의 영양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주인공은 "쑥 털털이"입니다.

쑥 털털이는 말 그대로 털털 털어서 먹는 모양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쑥 털털이는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음식이기도 해요. 참으로 고마운 음식이죠? 이런 고마운 음식을 먹고 여러분도 삶의 고뇌를 털털 터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선 쑥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쑥은 현대인에게 있어 만병통치약이에요. 현대인이 가진 질병의 원인 대부분이 환경오염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독소의 발생 그리고 스트레스에 싸여있기 때문에 독소를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쑥은 현대인의 거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또한 쑥은 여러 식품의 부재료 혹은 주재료로 사용될 뿐만아니라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식품 첨가물, 천연색소 등의 소재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요. 쑥의 일반 성분은 수분 76%, 단백질 4.7%, 지방 1.9%, 조섬유 14.5%이며 그 외에도 알칼오이드, 무기질, 비타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쑥은 특히 만성 위장병, 하복 부통, 천식, 구충 및 악취제거에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쑥 추출물은 혈당량 저하, 체중 감소를 방지 혈중지질저하, 고지혈증과 당뇨를 개선 시켜요.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보물이죠? "가장 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말은 쑥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쑥은 흙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영양가가 듬뿍 있는 쑥 털털이 조리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쑥 털털이 만들기

재료 : 쑥 200g, 멥쌀가루 3cup(소금 넣어 빻은 것) , 비트 50g, 단호박 50g

만드는 법 :

1. 쑥을 깨끗이 다듬어 씻어서 물기를 빼 놓는다.
2. 비트는 가로 2cm, 세로 1cm 두께 0.8mm 정도 크기로 썰어 놓는다.
3. 찜기에 보자기를 깔고 멥쌀가루에 쑥과 비트, 단호박을 같이 섞어 보자기위에 넣은 후 약 30분이상 쪄내준다..
4. 젓가락으로 찔러 쌀가루가 묻어나지 않으면 불을 끈다.

글.
윤태환 한약사,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수석부회장

나른한 봄날 머리를 맑게 해주는 매화 차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매화는 홍매화와 청매화이지만, 한방에서는 청매화를 백매화白梅花라 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 매화는 그 향기만 맡아도 맑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통도사 경내에 매화가 피었을 때 이른 새벽 절 마당에 퍼져 있는 매화 향을 한번 맡아 본 분은 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이다.

매화가 갖는 약성藥性은 맛이 쓰면서도 약간 단맛 과 신맛을 갖고 약기운이 평이하면서 간肝, 위胃, 폐肺, 경經에 작용하여 긴장감을 풀어주고, 식욕을 나게 해주면서 목의 이물감을 없애준다. 또한 맑은 기운氣運을 올려주는 성질이 있어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두부頭部의 열을 내려 준다. 홍역에 의한 피부 발진發疹, 천연두에 의한 두진痘疹등을 낫게 하는 효능과 더불어 피부를 맑게 하기도 하며 입안의 구취 제거 효과도 있다.

사월은 절후상 청명, 곡우가 들어 있는 봄의 중턱에 이르는 달로 봄의 기운이 한껏 피어오르는 달이다.
우리 몸도 따사로운 봄기운에 따라가기 위해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 바깥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면 봄날의 노곤함을 느끼고, 머리가 무거워 지기도 하며 식욕도 떨어지면서 밤에 꿈도 많이 꾸게 된다.
이런 때에 봄을 알리는 대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매화꽃으로 차를 만들어 마실 것을 권하고자 한다.

차만들기

1. 청매화의 꽃봉오리 또는 갓 핀 꽃을 따서 한지나, 깨끗한 돗자리 위에 펴서 말린 후, 밀봉하여 건조하게 보관하여 두고 사용한다.
2. 간단하게는 채집한 꽃봉오리나 꽃을 소량씩 분리하여 비닐봉지로 밀봉, 냉동 보관하여 두고 사용한다.
3. 차로 우릴 때는 물 한 컵(약 50ml)기준, 3~4송이 비율로 하여 뜨거운 물로 바로 우려 마신다.
4. 우릴 때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하므로 가볍게 우려내는 것이 좋다.
5. 녹차를 마실 때는 마지막에 녹차 우린 맛이 연해졌을 때 녹차 우린 물로 다시 매화차를 우려 마시면 향이 일품이다.

통도사 www.tongdosa.or.kr

통도사 직원 성지순례 (3월 3일)

3월 3일 통도사 임직원 70여명은 여수 향일암과 오동도로 직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적멸보궁에서 업무를 보는 최상의 근무환경이지만, 멀리 고찰을 만나러 가는 일은 신심을 고취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디어홍보팀 발대식 (3월 5일)

통도사의 이모저모를 알릴 미디어 봉사자, '미디어홍보팀' 의 발대식이 지난 3월 5일에 열렸습니다. 통도사 기획국에 소속된 자원봉사단체로 사중의 크고 작은 행사를 취재 • 기사화하여 알리고, 통도사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원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2016년 선다회 입회식 (3월 15일)

통도사 선다회는 1997년 첫 출발을 한 이후, 통도사는 물론 국내외 각종 행사에서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월 15일, 문수법당에서 주지스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입회식을 갖고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다인의 길에 들어선 신입생을 맞이하였습니다.

제6회 양산시민과 함께하는 「통도사 순례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3월 20일)

통도사로 오르는 무풍한송길이 모처럼 2천여 사부대중으로 북적였습니다. 3월 20일 '제6회 양산시민과 함께하는 통도사 순례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가 열렸습니다.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 나동연 양산 시장을 비롯해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하였으며 통도사 산사길 걷기(1코스)와 안양암 동대길 걷기(2코스) 등 2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먹거리 장터와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곁들어져 풍성한 걷기 대회로 성료되었습니다.

통도사 말사 주지임명

무 궁 사 대한스님
청 하 암 성관스님
불 암 사 등운스님
보 광 사 도진스님
보 문 사 효진스님

통도사 본사 소임자 임명

연수과장 성주스님

통도사 내빈 방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내방
최익수 울주경찰서장 내방
이충훈 산업은행 양산본부장 내방
한찬식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내방
조현배 지방경찰청장 내방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지검장 내방
성세환 부산은행장 내방
나동연 양산시장 내방

박물관 www.tongdomuseum.or.kr

기도법회안내 : 인등 / 연등기도 : 4월 20일(수요일), 오후 5시 성보박물관 1층 중앙괘불전

4월 문화답사반 - 〈봄꽃 맞으며 신라의 옛 절터를 걷다〉 모집

- 답사장소 경주 일대
- 답사일정 2016년 4월 27일(수요일)
- 출발장소 통도사 _ 산문 앞 주차장, 오전 8시 출발 [시간엄수]
  부 산 _ 온천장역 1번 출구, 7시 30분 출발
- 신청방법 전화 및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하신 분에 한하며, 인터넷 등록 혹은 입금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동참비 40,000원
  새마을금고 : 9002-1537-6593-8. 예금주 : 통도사(통도사성보박물관)
- 문 의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 (055-384-0020 / www.tongdomuseum.or.kr)

날 짜	시 간	일 정	비 고
27일(수)	07:30	부산 온천장역 1번출구	
	08:00	통도사 산문 앞 주차장 출발	출발
	09:00 - 12:00	황룡사지, 분황사, 분황사동방폐탑지	답사(3시간)
	12:00 - 13:00	중식	
	13:00 - 16:00	황복사지, 능지탑, 중생사,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답사(3시간)
		통도사 산문앞 주차장 도착	해산

※ 답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이 15인 이하일 경우는 답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7회 문화자원봉사자의 날 기념법회

제 17회 문화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기념법회를 갖습니다.

- 일시 : 2016년 4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성보박물관 1층 중앙괘불전
- 참석대상 및 인원 : 자원봉사회원 및 가족, 기타 희망하시는 분

제27회 불교미술사학회 개최

27회를 맞이하는 불교미술사학회는 불교미술사를 사랑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해 함께 고민하는 학술단체입니다. 학회 회원들을 포함하여 불교미술사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년 4월 9일(토) 오전 10시 10분부터
- 장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지하 1층)
  (발표 주제 및 세부사항은 통도사성보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자비원 www.jabiwon.org

통도사자비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200여 분의 어르신들과 지역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80여명의 종사원이 최상의 서비스로 극진히 보살펴 드리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봄 '나들이'

양로원에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순매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다함께 매화꽃 내음을 느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찌르고, 막고 어르신들의 신나는 '건강체조'

요양원에서는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찌르고, 막는 태권도 동작을 응용하여 단순한 반복적 훈련이 아니라 근력 및 유연성 운동을 보완하는 건강체조를 하였습니다. 기본체조 동작을 보다 쉽게 변형하여 민첩성과 근력, 유연성이 저하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으로 모두 즐겁게 운동을 하였습니다.

겨울동안 언 몸을 녹이는 '실버요가'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간보호 어르신들의 겨울동안 얼어붙은 몸을 풀어줄 요가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가는 몸에 유연성부여, 근육강화 통증예방 호흡에 도움을 주며 노화지연, 자세교정, 근력강화에 효능이 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하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비롭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자원봉사자모집 : 목욕, 청소, 이 · 미용, 보건 의료지원, 프로그램 진행, 각종행사지원, 말벗 등
- 물품후원 : 생필품, 의약품, 가전제품, 의복, 쌀, 간식, 기저귀 등
- 후원계좌안내(cms, 지로, 통장입금)

농협 : 813037- 51- 054104　　국민은행 : 666 - 01 - 0040 - 891

- 전화 : 055-385-2800(직통), 383-3999 / 팩스 : 055-381-2242
- 주소 : 우)626-86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72-3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금행 강원 치문반

인연因緣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축총림 통도사 강원 치문반에 재학중인 금행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어떤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눈보라가 날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방과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 무심코 바라본 길 건너편에는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던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가던 길을 멈춘 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함 속에 수려함을 지닌 그 분의 모습에서 저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뭔지 모를 환희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리불 존자가 탁발하던 마승 존자를 만났을 때처럼 말이죠.
훌륭한 스승을 찾아 헤매던 사리불 존자는 어느날 아침, 부처님의 젊은 제자 마승 존자가 탁발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탁발하는 마승 존자의 위의 있는 모습을 본 사리불 존자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성자라 할만한 이가 있다면 저 사람은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틀림없을 것이다. 스승이 누구인지 물어보자'

라고 생각한 사리불 존자는 탁발이 끝날 때까지 그의 뒤를 쫓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마승 존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우아하고 안색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마승 존자는 자신은 부처님의 제자이며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사리불 존자는 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마승 존자는 가르침의 내용을 요령 있게 전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사리불 존자는 단념하지 않았죠.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만한 것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마승 존자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들려주었습니다.

諸法從緣起 (제법종연기)
如來說是因 (여래설시인)
彼法因緣盡 (피법인연진)
是大沙門說 (시대사문설)

모든 법은 인�因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여래께서는 이 인�因을 설하시었다.
저 모든 법의 소멸에 대해서도 대 사문(부처님)은 이와 같이 설하시었다.

마승 존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을 뿐인데도,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제자가 됩니다.
저 역시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그 스님의 여법하고 위의 있는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였던지, 저도 모르게 우와… 라고 중얼거리듯 감탄을 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날의 그 순간이 저의 초발심이 아닐런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부처님께서 금하신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비구의 위의가 아닌것(非威仪)
2. 사문의 법이 아닌것(非沙门)
3. 청정한 행이 아닌것(非清净行)
4. 수순하는 행이 아닌것(非随顺行)

이렇듯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처소에 머물던 항상 위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청정하고 수승한 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찰하여, 자신의 허물을 볼줄 알아야 하며, 그 안에서 반성하고 참회함으로써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연이란 만들기도 하지만, 기다리면 스스로 다가오기도, 스스로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헤어지고 만나고 또 만나고 헤어짐은 우리들의 큰 배움입니다.
분별심을 두지 말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 한 분 한 분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여, 비록 인연이 다 되어 멀어지게 되더라도 멋지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월간 등불,
아름다운 법보시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자랑입니다.

월간 등불을 법보시하는 일은
법공양의 실천입니다.

월간 등불을 후원하는 마음은
불법을 홍포하는 문서포교의 불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월간 '등불' 이 있습니다.

이달의 법보시 동참자

주지스님, 도문스님, 선본스님, 도안스님, 무위스님(양산포교당)
정진스님, 성법스님, 부산 원오사, 서일스님, 진응스님
선다회 학생회, 선다회 사범회, 적멸도량회, 통도사 포교사회
불기청광회 회원 일동, 통도사 수련동문회, 염불공덕회
사리탑봉사반, 바라밀다봉사회, 김현철, 임성문, 최서윤(을미생)
박태영, 김태윤, 내원사, 박근택, 수진, 오기원, 박태영, 홍성표

매월 2만원 법보시 동참 바랍니다.(동참자 성함 게재해 드립니다)

月刊 등불

'법공양 마당'

장소 : 불이문, 산중다원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 등불
이 '법공양 마당' 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경내에 마련된 등불 법공양 마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폭넓게 읽히는 월간 사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월간 「등불」 편집실에서는 10년 이상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고 발행해 온 소식지의 1년 정기 구독료를 5천원 상향 조정하여 2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발송료와 제작비 등 많은 부분 물가 인상이 있어 부득이 내린 결정이오니,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독자 여러분들과 불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월간 「등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선원에
입방 희망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통도사 보살선원이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나은 정진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대 상	70세이하, 70세이상은 선원장스님과 면담 후 결정
시 기	▶ 동안거 10월 15일(음) ~ 익년 1월 15일 ▶ 봄산철 10월 16일(음) ~ 4월 14일(음) ▶ 하안거 4월 15일(음) ~ 7월 15일(음) ▶ 가을산철 7월 16일(음) ~ 10월 14일(음) ※산철은 자유정진
정진시간	하루 7시간
방 부 비	개인1실 - 120만원, 출퇴근 - 50만원(1인 1실 규정)
연 락 처	055-381-0977 보살선원

각양각색이며 그 색의 성품 또한
천양지차입니다.
사람의 모습도 자연의 풍경도
어느 하나, 같은 모습 없습니다.

봄의 꽃은 꽃이 피고 질 때를 기다려
잎이 뒤를 잇습니다.
그러나 여름 꽃은 다릅니다.
잎을 먼저 틔운 후
꽃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순리라면 순리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순서를 알지 못합니다.
난 순서대로 가는 법 없으며
가는 순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도량에는 봄꽃 가고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꽃 대신 사람이며 꽃을 대신할
마음꽃입니다.
꽃 보다 더 고운 사람의 꽃,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마음꽃
만개한 시절입니다.

우리 사는 도량, 율의로 장엄할
보살계산림이 도래하는 때입니다.
소리 이전, 약속 이전의
본래지를 가늠하고 계시온지요.

그곳에 천하를 호령할
기개 번쩍이고 언어 이전의 법담,
화장세계 장엄하여 꽃 피울
것입니다.

호리狐狸의 의심 없이
마음꽃을 피우십시오.

그대 가장 귀한 꽃 되리니.

회원 구독료 안내

1년 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20만원으로 평생 등불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안내 (예금주 : 통도사)

국민은행 666-01-0060-891
농　　협 813015-51-082016
신한은행 140-000-925706

우편접수

50501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등불 편집실 앞 / 문의 : ☎ 055) 384-8380

※ 주소이전, 송금 온라인 등으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에는 겉봉투에 표기된 성명으로 해주십시오.
※ 우편물 배달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혹, 이사를 가시면 연락을 주시고 성금과 구독료 납부에 이상이 있으면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부처님께서는 법보시를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이나 군부대, 교도소, 학교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곳으로 영축총림 통도사가 발행하는 '등불' 보내기에 동참합시다.
※ 은행 입금분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혹, 누락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등불' 은 등불가족 여러분들의 투고로 만들어지는 월간 소식지 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편집실 이야기

월간 등불은 34여 년의 전통을 지닌 영축총림 통도사의 사보寺報입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여러 독자님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발행되는 불지종가를 대변하는 소식지입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맑고 아름다운 등불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의 참여와 독려를 바랍니다.

참여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1년 연장)
강민경, 홍종석

새로운 등불가족 되심을 축하드립니다(1년 신규)
박정순

함께 하는 마음이 등불을 살찌웁니다(평생 회원)
최현수, 김기분, 최동호, 최미서, 최보미

영 축 총 림 통 도 사

보광선원 신축불사

영축총림의 보광선원은 통도사의 대표적 수행처입니다
그러나 수 백년을 지켜온 보광전 당우는 낡고 퇴락하였고 보궁기도와 법회로 인하여 정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도사는 방장 원명지종대종사의 원력과 사중의 뜻을 모아 정진에 진력할 수 있는 선원 건립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를 뽑는 선불장 불사에 동참하시어 총림의 당간을 높이 세우고 선풍을 일으키는 뜻깊은 일에 수희 동참 바랍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엄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우체국 611434-01-002199(예금주 : 통도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월간 등불. 2016년 4월 5일 발행 (통권413호) | 발행처.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전화 055) 384-8380 팩스 055) 382-7196